

예수와 그리스도교

박영호 (다석사상연구회)

예수와 그리스도교와의 관계를 묻는다면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말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교요 그리스도가 예수라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 감독교회 뉴왁 교구 감독으로 24년 동안이나 봉직한 존 쉘비 스펡 감독은, 우리나라 말로도 옮겨진 인기 있는 저서『기독교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에서 사도신경을 인정할 수 없다는 깜짝 놀랄 말을 하였다. 사도신경은 바울신경으로 알아야하고 사도행전도 바울행전으로 알아야 바로 아는 것이다. 사도신경에 예수의 탄생과 죽음(부활)만을 언급한 것은 바울이 예수를 신격화(우상화)한 바울의 신학일 뿐이다.

“그러나 나는 기독교의 미래와 그 형태는 과거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기독교 형태와는 다를 수밖에 없으며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다.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이슈는 그렇게 발전하는 미래의 기독교가 과거의 기독교와 적절히 연계되며 여전히 연계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나는 스스로를 기독교 신자라고 주장하며, 나의 주님이며 그리스도인 예수에게 깊이 헌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또한 나 자신의 종교적 과거의 전제들로부터 유배당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나는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당시의 문자적 이해로부터 유배당한 상태이다.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세계관으로부터 유배당한 것이다.” (존 쉘비 스펡, 『기독교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존 쉘비 스펡은 사도신경을 거부하면서도 교회에 남아 부자유스럽게 노예처럼(식민지의 삶) 사는 길을 택하였는데, 데이브 톨린슨은 “교회를 버리고 불량 크리스천이 되어 스스로를 이끌어 주는 영성의 지혜를 추구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종교 율법이나 도그마(교의)가 아니다. 온갖 근본주의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9·11 이후의 세계에서 종교 문헌을 곡해하거나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데서 비롯된 광신(狂信)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지혜이다. 인생행로를 보편적인 사랑과 존중의 영성(靈性)으로 이끌어 주는 지혜 말이다.”(데이브 톰린슨, 『불량 크리스천』) 이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바울신학에서 해방되어 예수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슈바이처는 기독교가 예수의 진리정신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현대 기독교는 그 정신 또는 윤리적 본질에 있어서 일할 능력을 상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서 세속적 위치가 매년 강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기기만에 빠져있다. 기독교는 일종의 새로운 속화(俗化) 과정에서 시대정신에 영합하고 있다. 기독교도 다른 조직체와 마찬가지로 그 조직을 점점 강화하고 통일함으로서 실제적으로 성공하여 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가 외적인 힘을 얻는 만큼 정신적인 힘을 잃고 있다. 기독교가 사상을 내어버리고 세력과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니 그것은 도리어 사상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기독교 자체만으로 무사고(無思考)와 회의심(懷疑心)을 이길 수 없다. 기독교 사상이 지닌 영원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는 다만 사색(思索)에서 흘러나오는 근본적인 경건(敬虔)이 있을 때다.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도 강물이 말라버리지 않는 것은 그 밑에서 지하수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기독교도 근본적인 사색에서 오는 경건이라는 지하수를 필요로 한다. 사람의 생각에서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지 않을 때에만 기독교는 실제로 정신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 나는 사색에 의해서 기독교에 대한 내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나 자신에 대하여 나는 잘 알고 있다. 사색인은 전통적인 종교적 진리에 무사색의 사람보다 자유스럽게 대한다. 그리고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깊고 영원한 진

리를 보다 생생하게 파악하는 것은 사색하는 이만이 가능하다. 예수가 전해주고 사색으로 이해된 기독교의 본질은 다만 사상에 의해서만 우리가 한얼님과 하나 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 한얼님에 대한 생생한 인식이란 모두가 맘속에서 그를 생각의 뜻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기독교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일이란 기독교가 완전히 예수의 진리 정신으로 충만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본래의 사명에 따라 예수의 정신 속에서 하나 된 사랑의 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서야 기독교는 인류의 정신생활에 대한 누룩이 될 수 있다. 19세기 이래 기독교로서 세계에 나타난 것은 아직 기독교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허다한 약점과 잘못이 있다. 예수의 진리 정신에 나온 온전한 기독교라고 할 수 없다.”(슈바이처, 『인생을 말한다』)

슈바이처의 주장도 한마디로 바울신학에서 예수의 사상으로 돌아가자는 말이다.

헨리 데이빗 소로우는 러시아의 레프 톨스토이와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에게 사상적인 영향을 주어 그들로부터 경애함을 받은 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예수가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는 말까지 하면서 한편으로 “나는 예수에 관념치 않는다.”고 말하였다. 소로우는 기독교 교회를 회의론자, 무신론자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말하였다. 소로우는 교회에 관심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렇게 일기를 많이 썼는데 예수의 말씀을 옮겨 쓴 것을 볼 수 없다. 소로우에게는 대자연이 한얼님이 주신 성경이었다. 대자연 속에 숨으신 한얼님을 찾아내는 것이 제 자신의 천직이라고 생각하였다.

“내가 보잘 것 없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감정이 나를 사로잡는다. 생각해보면 나는 무뢰한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모두 어느 정도 타당한 감정이고 생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얼님이신 우주정신은 대체로 나에게 친절하다. 그 까닭은 나도 모르겠다. 어쩌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은 이례적인 것인지도 모르겠다. 아! 나는 외롭기 필요하다. 사람보다 더 위대한 한얼님과 만나 이야기하기 위해 석양에

언덕에 올라 저기 지평선 상에 걸린 뫼즐기(산맥)를 바라본다. 대자연의 거룩한 모습은 나에게 무한한 격려이다. 내가 굳건한 고독을 구하는 것은 나의 영원(한얼님)에 대한 바람과 그리움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찾는 것은 나의 어떤 온건한 허약함 때문이다. 교회라! 교회는 가장 대표적인 소심한 제도이다. 교회의 받침돌과 기둥은 체질상, 교리 상 세상에서 가장 겁 많은 이들로 구성되었다. 성가대의 찬송 소리는 연못에서 울려오는 개구리 목소리만큼 용감하고 활기차지 못하다. 소위 최상의 설교자란 나약한 족속들이다. 그들의 가장 용감한 사고(思考)는 페티코트(petticoat)를 입고 있다. 그들이 사나이다운 면을 조금이라도 가졌다면 성직이 아니라면 야구경기 밖에는 관심 둘 곳이 없더라도 성직을 포기할 것이다. 나는 예수에 꽤념(掛念)치 않는다. 나는 막 지은 새 옷을 입고 교회에 가서 신도석 등받이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는 사람에게 공감하지 않는다.” (소로우, 『소로우의 일기』)

소로우가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수에 대해서 까지 꽤념치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소로우의 일기에는 분명히 적어 놓은 글이 있다. “이 세상의 지혜란 한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현자들의 이단 사상인 것이다.”(소로우, 『소로우의 일기』, 1840. 7. 6) 소로우도 교회의 바울신학을 멀리한 것이지 예수를 멀리한 것이 아니다.

류영모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싶지만 예수 믿는다면 무슨 무당(샤머니즘) 노릇하는 것 같아 싫어진다고 하였다. 예수를 스승으로 받들고 본받아야 하는데 신격화하여 화를 면케 하고 복을 받게 빌게 되면 나도 모르게 무당 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수의 가르침은 어버이가 낳아 준 짐승인 제나는 거짓나라 부정하고 한얼님이 주시는 얼나로 솟나 한얼님의 뜻을 좇는 한얼님 아들 노릇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의 가르침을 기복신앙으로 만든 이가 자칭사도 바울이다. 아놀드 토인비가 이렇게 말하였다.

“사람이 종교를 신앙하려면 그 종교의 교의(敎義, Dogma)는 믿을만

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다. 어느 고등종교가 내걸고 있는 교의도 그 종교에서 보면 근본적인 것인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믿을만한 것이 못된다. 나의 선조(先祖) 전래로 믿어온 교의(사도신경) 속에 있는 예수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였으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뒤에 무덤에 장사 지낸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가까운 이 몇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였다는 것은 나로서는 믿을 만한 것이 못된다. 왜냐하면 나는 이 교의가 우주의 본질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그리는 것과 조화 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토인비, 『회고록』) 토인비도 바울신학인 사도신경을 반대하는 말이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일 것이다. 가난하여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학력을 가졌으나 성경을 늘 읽으면서 예수를 본받아 한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였다. 그런데도 백악관에 지낼 때에 목사를 부르는 일 없이 스스로 예배를 보았고 도무지 교회에 나갈 생각을 아니하였다. 링컨이 자신이 한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면서 도무지 교회에 나가지 않는 까닭을 밝혔다. “교회들이 내거는 교의(敎義)들을 치우고 예수님이 내린 한얼님을 사랑하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자는 이 두 큰 계명만 내세운다면 나도 교회에 나가겠다.” (링컨, 『링컨 전기』)고 하였다. 이 사람도 그 생각에 아멘이다.

예수와 석가도 그 진가는 인생의 참맛(眞味)를 드러내는 그 말씀에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는 바이다. 예수가 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마태 7:9~10) 아버지의 인자한 맘을 잃지 않았다면 당연한 말씀이다. 이의가 없는 말씀이다. 그런데도 또 이런 말을 하였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마태 10:16) 이 말을 읽을 때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 어리둥절하였다. 그런데 성천(星泉 류달영)을 알고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이를 보게 되었다. 비둘기처럼 순결한 이는 가려 보기가 쉽다. 양심적이고 자비로운 이를 말하기 때문이다. 뱀같이 지혜로운 이는 진리를 좇기에 냉철한 이를 말하는 것이다. 예수가 한얼님의 뜻을 좇고자 자신의 몸 목숨조차 가볍게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뱀같이 지혜로운 냉철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류달영은 어릴 때 한학자인 아버지에게 논어를 배워 공자를 존경하게 되어 예수교를 멀리하였다. 그런데 양정고보를 5년 동안 출공 김교신을 담임선생으로 모시는 인연을 갖게 되었다. 김교신은 류달영이 실력이 있고 머리가 수재임을 알고서 자기 혼자서 발간하는 성서조선 전도 잡지 교정을 류달영 학생에게 맡기게 되었다. 5년 동안 성서조선지교정을 보고나니 류달영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경애하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하여 성서조선 사건에 연루되어 미결수로 1년 동안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류달영은 김교신과 돈독한 스승과 제자 관계인데 거기에 성서조선 사건으로 1년 동안 옥고를 함께 치른 무교회 신앙 동지가 되었다. 그리하여 류달영은 김교신 은사의 가정 살림 살이까지 마음을 썼다. 성서조선 사건으로 학교에서 해직을 당하여 둘 다 수입이 없게 되었다. 류달영은 가까이 아는 이의 주선으로 고향(이천) 군청서기로 취직을 하여 월급을 받아서는 김교신 은사 댁에 먼저 챙겨 드렸다. 나라의 광복을 눈앞(8월)에 두고 4월에 함흥 비료공장에서 일하던 김교신이 법정 전염병인 발진티프스로 44살에 요절하였다. 부음을 들은 제자 류달영은 “나는 아버지 친상을 당했을 때보다 더 슬펐다”(류달영, 『소중한 만남』)고 말하였다. 그렇게 물심으로 가까운 사이인데 류달영은 김교신의 철저한 무교회 신앙을 잊지 않고 떠났다. 성천문화재단 강의실에 무교회 모임을 열지 않고 오히려 필자에게 다석사상 강좌를 하라고 권고하였다. 이것이 뱀처럼 지혜로운 냉철함이다. 인정사정에 끌림이 없음이다. 류달영은 ‘나의 종교관’이란 글에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종교의식을 초월한 크리스천으로 어느 교회의 교적도 가진 일

없이 성경 중심의 믿음을 조용히 지켜 왔다. 종교는 사람만이 가지는 정신세계이다. 사람은 정신의 수준이 높아갈수록 자신의 무력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무력함을 가지고 높고 넓고 깨끗한 일생을 살아가려고 힘쓴다. 이러한 삶의 목적을 이루고자 힘쓸 때에 위대한 힘의 도움을 요구하게 된다. 사람들은 종교 신앙으로 마음의 안정을 얻어 자기능력 이상의 값진 삶을 살게 된다. 우리나라의 큰 인물인 다석 류영모 선생은 종교 다원(多元)주의를 주장하고 그 신념대로 살았다. 인류 역사의 문화적 진리의 종교를 창시한 분들의 심오한 사상은 결국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탐진치(貪瞋癡)의 짐승성질을 꺾고 한얼님과의 열로 통한 말씀으로 한얼님 사랑과 이웃사랑에 맘과 뜻을 다 하자는 것으로 다 같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이 믿는 종교도 존중하며 익히는 것이 옳은 것이다. 나는 성서를 공부할 때에 동정녀 탄생 설화나, 죽은 뒤에 무덤에서 부활해 승천하였다는 등 이적(異蹟) 기사(奇事)에 신경을 쓴 일이 없다. 오직 예수의 이웃사랑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살려고 힘썼다. 나를 이단자라고 하는 이도 있지만 예수도 석가도 모두 위대한 이단자들이다.” (류달영, 『소중한 만남』) 류달영도 바울신학을 떠난 것이다. 김교신은 무교회 신자로 자처하면서도 바울신학인 사도신경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예수, 석가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은 예수, 석가를 본받을 스승으로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신격화하여 신앙의 대상으로 하여 복을 주고 화(禍)를 면케 하는 샤머니즘으로 신앙화 시켰기 때문이다. 류영모는 예수를 미화하여 우상화 하지 말라고 하였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쳐다만 보고 믿는다고 해서 진실한 신도가 될 수는 없다. 예수의 얼굴은 보잘 것 없다. 지난간 것의 한 가지 일인데 무엇이 대단한가? 다만 예수의 진리 정신이 오늘날까지 폭포수처럼 우리 머리 위에서 부어주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예수가 대단한 존재인 것이다”(류영모, 『다석어록』)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고 절을 찾는 목적이 예수, 석가에게 의식적으로 예배드려 화(禍)를 면하고 복을 받으려는 것이다. 예수, 석가가 언제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일이 있었던가? 설삼용 목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옛사람들의 중요한 종교행위로는 복(福)을 받고 화(禍)를 피하기 위해 비는 것이었다. 이러한 신앙은 사람의 도덕적인 양심을 억압하고 인격을 비하(卑下)시켜 공포심을 일으킨다. 러시아의 저명한 종교학자인 벤자로프는 시베리아와 몽골 등지의 샤머니즘에 있어서 샤먼(무당)의 기능은 제사, 치료, 예언이라고 하였다. 한국인 샤먼들에게는 이 3가지에 노래와 춤이 더 곁들여진다. 공교롭게도 이 4가지 기능은 기독교와 일치한다. 이 일치성 때문에 기독교는 쉽게 이 땅에 뿌리를 내려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를 샤머니즘적인 기독교라 부르기도 한다. 그리하여 샤머니즘적인 스타일을 모방하는 교회는 크게 부흥하고 있다. 한국인은 질병이나 재난을 만났을 때 이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기도를 한다. 그런데 그 기도가 다분히 샤머니즘적이라는 것이다. 가정심방이나 안수기도 하는 교직자들이 샤먼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신도들로부터 요청을 받고 있다. 부흥회에서 기사이적(奇事異蹟)만을 기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즉석에서의 효과를 기대하는 샤머니즘적인 현실주의다. 한국 기독교 청년들의 여론조사에서 목사들의 목회 방법은 기독교가 아니라 샤머니즘에 속한다고 밝혀졌다. 한국인의 의식 속에는 샤머니즘이 수천 년 동안 뿌리를 내려왔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종교이든지(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한국에 들어와서는 샤머니즘의 옷을 입고 살아왔다. 이와 같은 민족성을 재빨리 파악한 목사는 자신도 모르게 샤먼이 되어 버린다. 샤머니즘적인 목사는 여기 저기 돌아다니며 안수기도를 하고 신령한 말들을 지껄인다. 한국에서는 목사가 무당이 된 것을 성령 충만으로 오해하는 일이 허다하다. 때문에 성경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축복의 조건으로 금품을 강요한다. 광적인 안수기도와 여기에 노래와 댄스까지 곁들인다. 더 열광적인 샤

면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간다. (설삼용, 『샤머니즘』)

설삼용 목사의 말에 틀린 말이 없다. 그런데 모자라는 말이 있다. 샤머니즘은 동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은 물론 오늘에까지도 세계 곳곳에 있다. 더구나 기독교를 만든 바울도 대단한 샤먼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샤머니즘을 전문으로 연구한 엘리아데는 그의 저서 『샤머니즘』에서 샤머니즘을 원초적(原初的) 종교에 아주 가까운 종교 현상으로 다루고 있다. 그에 의하면 “샤머니즘은 신비주의의 역사에 있어서는 물론 종교사의 제 1장에서 다루어야 할 고대적 종교현상이다. 샤머니즘은 오늘날도 모든 고등종교의 표현 저변에 깔려 있으며, 샤머니즘은 엑스타시(extacy, 무아경(無我境))의 기술이라고 정의하며 샤먼이란 엑스타시의 대선생(大先生)“(엘리아데, 『샤머니즘』)이라고 한다.

모든 종교의 비릇이 샤머니즘에서 출발한다는 말은 거짓말은 아니지만 거짓과 속임이 샤머니즘에서 나온 것도 사실이다. 온전한 신관을 확립하고 탐.진.치 짐승성질(獸性)을 죽이고 성령(聖靈)을 바로 맞으면 예수, 석가 같은 성자(聖者)가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서툰 샤먼 밖에 되지 못한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다.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척 하면서 예수의 가르침을 무너뜨리고 자기의 샤먼적인 틀린 생각을 세상에 퍼뜨리는 못할 짓을 하였다. 조태연 교수의 글을 소개한다.

“바울은 예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예수의 얼굴 모습도 한 번 보지 못하고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사도(예수의 제자)라 하였으나 다른 참 사도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였다. 신약성서를 보면 바울은 예수에 대한 역사적 관심은 버린 채 오직 예수의 생사(生死)만을 얘기하지만 오히려 복음서의 예수는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가르친다. 바울의 편지들이 교회의 이야기라면 복음서는 전적으로 예수의 말씀이다. 바울이 AD 50년대 초반부터 이미 문서 활동에 들어갔음에 비하여 4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인 마가복음은 그로부터 20년이 늦은 AD 70년경에 쓰였다. 시간적으로 역사적 예수와 마가복음 사이의 그 잊혀진

40년 동안 그러니까 바울과 동시대 또는 그 이전에도 예수의 말씀을 되뇌며 그 행적을 재연하던 예수를 좇는 신앙공동체들이 있었다고 한다. 아주 최근의 신약학의 경향을 따라 필자는 헬레니즘 세계에서(지중해 연안)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바울의 그리스도교와는 무관하게 그러나 대략 동시대에 예수의 말씀과 몸가짐을 바로 계승해 온 공동체를 가리켜『예수운동』이라 부른다. 그들 공동체는 지리적으로는 갈릴리와 팔레스타인 지역에 분포하여 있던 예수교의 가장 중요한 원류(原流)이다. 그들은 참으로 예수의 언행(言行)을 좇으며 스승으로 받드는 신도들로서 그 언행을 가장 간소하게 문자화한 어록(도마복음서 어록, Q복음서)을 간직해 온 공동체이다. 여기에 이르면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게 한다. 예수교의 기원은 예수 자신에게 있는가? 아니면 예수를 자기의 독특한 신학적 성찰로서 해석하여 헬레니즘 세계에 그리스도교로 토착화시킨 신학자 바울에게 있는가?” (조태연,『예수운동』, 케리그마 없는 예수교의 도전)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라 하겠다. 엄격히 말하면 예수는 교리를 내세운 일도 교회를 세운 일도 없다.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내걸고 교리를 내걸고 교회를 세웠다. 교리는 바울의 샤먼(무당)적인 신화와 신앙으로 이뤄진 것이다. 바울의 교리는 바울이 세운 헬레니즘 기독교 교회에서 AD 4세기경에 사도신경으로 요약되었다. 바울이 처음부터 역사적 예수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그리고 일부러 예수의 직제자들을 멀리한 것은 바울의 예수에 대한 샤먼적인 신앙 때문이었다. 올바른 신관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바리새 신학 공부로 구약적인 지식과 신앙이 예수를 적대시 하다가, 신비하고 공포스럽고 매력적인 예수의 일생이 예민한 바울에게 현성(顯聖, hierophany)으로 잡힌 것이다. 바울의 이 샤머니즘적인 신앙에 이스라엘 민족의 숙제인 원죄를 속죄시키는 영웅심리가 작용하여 대속 교의(도그마)를 열매 맺게 되었다. 이렇게 바울에게 신앙의 대상이 된 예수의 신성은, 하나님의 육화(肉化)로까지 보게 되는 절대 타자로서 체험되어지는 종교적 실체

라고 엘리아데가 그의 저서『샤머니즘(Shamanism)』에서 밝히고 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이다.

바울은 예수의 모습도 못 보았고 예수의 말씀도 듣지 못한 사람인데 입만 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갈 1:1~3)고 소리치기를 일상으로 하였다. 그뿐 아니라 예수의 참 사도와 그를 좇는 이들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옥 하늘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갈 1:8)

바울이 저주를 퍼부은 이들이 바로 진짜 예수의 말씀 좇는 제자들인 것이다. 바울이 종교인의 기본인 탐·진·치의 짐승성질도 버리지 못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야 바울의 실체를 깨닫는 이들이 많이 나오니 큰 기쁨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국 교회 특히 개신교가 그 동안 바울의 그 케리그마(선언)적 복음만을 기독교 신앙의 전부로 생각하였다면 그것은 신학적 편견에 해당한다. 케리그마적 사건에 대한 믿음만이 사람을 구원한다는 배타적 신앙은 기독교인을 대화할 줄 모르는 독선적 신앙인으로 양산하기에 알맞았다. 특히 교회가 바울의 전통을 잘못 이해하여 관념적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 실천은 없고 자기주장만 강한 기독교인들을 육성하기 일쑤였다.” (조태연,『기독교의 배타성을 넘어서』)

류영모는 “죽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자는 것도 멸망이다.”라고 하였다. “몸은 예수, 석가의 몸도 거짓 생명의 탈을 쓴 것이다. 이 몸을 버리고 열나로 한얼님 아버지께로 가는 게 영원한 생명에 드는 것이다. 한얼님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몸나(제나)로 죽고 열나로 깬다는

뜻이다. 이것은 이 세상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제나(몸나)로 죽고 일어나 깨달은 이를 붓다(Buddha)라 부른다. 그러므로 붓다의 일어나는 몸이 나고 죽는 것과 다르게 니르바나님과 늘 함께 하는 것이니 니르바나님께로 드는 것도 나온 것도 아니다. 예수의 영원한 생명인 일어나도 마찬가지다. 이 생사(生死)의 몸나를 벗어 버리면 한량없는 기쁨이 있다. 임자이신 한얼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가면 종이고 알면 아들이다. 한얼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 복음(福音)이다. 지금 기독교인들은, 한얼님이 주시는 일어나를 참나로 깨달으면 한얼님의 아들인데 그것을 모르고 짐승인 몸나로 종노릇 하고 있다. '나는 종이올시다. 나는 죄만 짓습니다'라 하고 있다. 아버지께서 보시면 이게 무슨 답답한 일일까? 제 맘에 드는 성경 구절만 뽑아서 엉뚱한 교의(敎義)를 만들어 놓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의 가르침을 바로 아는 것이 아니다. 일어나는 다른 게 아니다. 한얼님의 뜻을 좇아 참 살게 하는 힘ियो, 슬기다." (류영모『다석어록』)